

절대농지 25년만에 손질…기대·우려 교차

쌀 수급안정대책…내년 2월까지 10만ha 규제 완화·해제

경지면적 1위 전남 “농지가치 상승” vs “식량안보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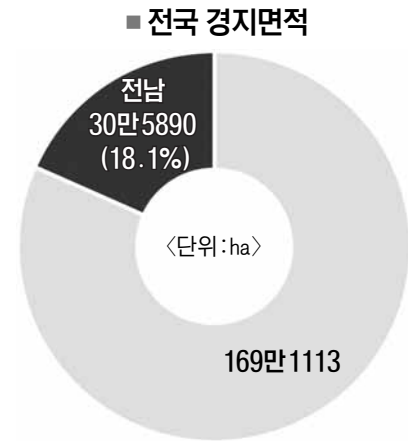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밝힌 쌀 수급안정 대책 가운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25년간 일명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남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총 경지면적은 30만5890ha로 전국 경지면적인 169만1113ha 가운데 18.1%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첫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발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지난 25년 간 2007년과 올해 단 두차례만 이뤄졌을 뿐이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광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이달 6월 말을 기준으로 8만5000ha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 1~2월까지 1만5000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하는 10만ha의 규제가 완화·해제된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

여 농민이 원할 경우 그때그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해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쌀은 물론 발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농업 환경과 여건이 해마다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농지관리 측면에 있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농지로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등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1조5천억

최근 6년간 이자발생액만 5백억

도시개발조합·건설사 등서 발생

최근 6년간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한 이자 발생액도 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두 1조5753억원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체납액과 함께 이자 발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6년 7개월간 9253건에서 체납이 발생해 이로 인한 이자만 해도 506억 3900만원이 넘었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건당 적게는 16억원에서 많게는 176억

원까지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861건 1558억4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7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098건에서 이자를 포함해 1583억 6000만원이 체납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2년으로 1303건 3630억원이 체납돼 이자만 167억원 발생했다.

황 의원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도 안 되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11조4350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조달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가을 전어의 눈물

태풍에 어획량 폭 ‘급감’

콜레라 겹쳐 소비 급감

전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최근 잇단 태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콜레라 여파로 판매량은 줄어 관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셋째 주 기준 1상자(75미 내외)에 4만7000원 수준이던 전어 산지 시세는 지난 20일 기준 6만원으로 28%나 올랐다. 지난달 20일만 해도 1상자에 4만8000원 수준이던 전어 시세는 이달 초에는 5만5000원으로 올랐고 최근에는 6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도 지난해 마리당 980원 정도 하던 것이 올해는 1280원으로 23%나 급증했다.

올해 전어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최근 주요 전어 조업구역인 남해안 지역에 잇따라 대형 태풍이 휩쓸고 가는 등 기상 악화로 조업선의 발이 묶이면서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격이 비싸졌지만 이달 초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콜레라 여파로 전반적인 수산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8~9월 이마트에서 전어의 전년 대비 판매 신장률은 -39%에 달할 정도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산지가 여수에서 군산, 장항 쪽으로 올라오고 콜레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영향이 개선되면 9월 말경이나 10월부터는 판매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 고(故) 조비오 신부의 분향소를 찾는 신도 등 추모객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권 주자·국회의원·지역 정치인 애도 행렬

선종 조비오 신부 빈소 표정

조비오 신부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는 22일 새벽부터 대권주자와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으며, 추미애 당대표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천정배 전 공동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시간차를 두고 빈소를 찾았다. 앞서 지난 21일엔 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오후 분향소엔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권 유력 주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과 당직자 등은 이날 빈소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같은 당 김경진·송기석·장병완·최정환 의원 등도 시간 차이를 두고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추모행렬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 등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빈소를 방문,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은방 의장은 “평생 광주와 이웃을 위해 살다가 쓰러져간 신부님의 의로움과 청빈함은 시민들의 마음과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시의회는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5월 정신 계승과 민중 화합을 이루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남콩 크기만한 흠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심정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려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정도 제대로 못주셨을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17평 ▶ **감정가 2억9천3천 원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6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원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망중음 ▶ **감정가 8억8천 원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 ▶ **감정가 1억1천4백 원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중음 ▶ **감정가 4천6백 원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중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금매 ★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정 상업지역 대지32평 전원별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역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